

국제교류교육원 해외 단기 어학연수 보고서

이 름	성보영	소 속	금오공과대학교
학 년		학 번	
연수 국가	캐나다	해외 연수 기관	Niagara College
연수 기간	2019.01.13. ~ 2019.02.09.		

겨울방학 한달동안 캐나다 Welland에 있는 Niagara College(NC)에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수업은 타 대학 학생들과 레벨테스트 후 반을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갔을 당시에는 한국 학생들밖에 없었지만 보통은 외국 어학연수 학생들과 함께 섞어 반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Integrated Skills, Cultural Studies, English Through the Arts 세 개의 과목이 있었는데 주 20시간의 여유로운 스케줄로 수업시간 외 자유시간이 많았고, 그 시간에 자유롭게 캐나다를 구경하거나 홈스테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버스로 1시간이 채 안걸립니다.) 조별과제, 발표와 회화 위주의 수업이었는데 다같이 어울리는 반 분위기와 자상한 선생님들 덕분에 부담스럽지 않고 재미있게 수업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외로 학교에서 액티비티 스케줄을 정해 주는데 활동들은 참여해도 되고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액티비티 덕분에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컬링, 하키 등과 같은 겨울 스포츠들을 엄청 재미있게 체험 및 관람하였고, 나이아가라 폭포, 벤쿠버 등을 구경, 여행하며 많은 것들을 보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배정받는 가족들의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모든 캐나다 가족들은 친절하게 학생들을 대해주었습니다. 저는 홈스테이 mom, dad, 베트남 학생 한명과 함께 지냈습니다. 점심은 홈맘이 준비해주시는 음식을 학교에 들고가서 친구들과 함께 먹었고, 저녁은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 먹으며 캐나다의 문화, 한국과 캐나다의 차이점 등을 얘기하였습니다. 홈스테이 가족들과 함께한 시간을 통해 listening 실력이 조금 더 향상된 것 같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정확한 발음을 하는 반면 현지 캐나다인들의 말은 빨라서 알아듣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집이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한 집에 모여 한국 음식을 홈스테이 가족분들에게 대접하는 홈파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달이라는 시간은 정말 금방가기 때문에 캐나다를 더 구경하고 싶거나 미국을 가고 싶은 분들은 항공권을 여유있게 예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론토는 미국과 가깝기 때문에 토론토에서 다른 캐나다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 미국으로 가는 항공권이 더 저렴합니다.

캐나다에서의 단기 어학연수를 통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어쩌면 평생 해보지 못할 많은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덕분에 많은 좋은 추억들을 만들며 자연스레 영어 회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 어학연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캐나다에 가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